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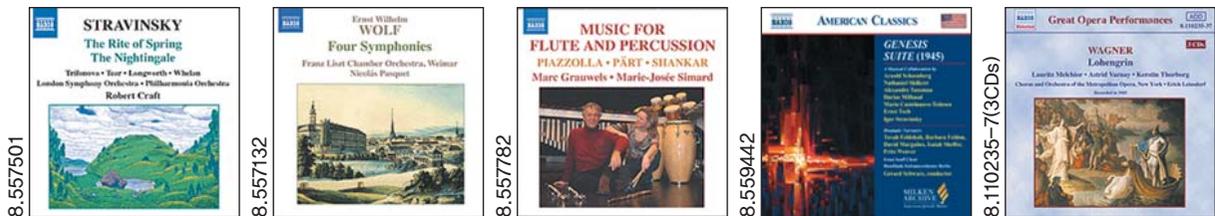
www.naxos.com

#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Monthly

#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September 2005



**8.557501** **Stravinsky: The Rite of Spring, Nightingale**  
London Symphony & Philharmonia Robert Craft  
위대한 스트라빈스키 스펙터클리스트의 드라마틱한 봄의 제전로버트 크래프트의 스트라빈스키 시리즈를 주목하고 있던 이들이라면 이번 봄의 제전 에 큰 반가움을 느낄 것이다. 많은 해의 평론가들이 가장 익사어명한 연주라고 평해왔던 그 연주의 실체를 직접 느껴보시라.

**8.557132** **Wolf: 4 Symphonies**  
Franz Liszt Chamber(Weimar) Nicolas Pasquet  
독일 초기 고전 작곡가의 생기발랄한 교향곡에른스트 볼프는 1771년부터 91년까지 바이마르의 카펠 마이스터를 맡았던 인물이다. 35곡의 교향곡 중 26곡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음반에 수록된 네 편의 교향곡은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기교적인 목관의 활용이 인상적이다.

**8.557782** **Music for Flute & Percussion**  
Marc Grauwls(fl) Marie Josee Simard(percu)  
내한 공연의 감동을 고스란히 이어줄 음반. 8월 19일 내한공연을 가졌던 벨기에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마크 그로웰의 신보 피아졸라, 라비 상카, 페르트, 케이코 아베 등의 형형색색의 작곡들을 플루트와 퍼커션의 색다른 이중주로 감상할 수 있다.

**8.559442** **Various Composers: Genesis Suite**  
Berlin Radio Symphony Gerard Schwarz  
2005년 그라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레이빗 프로스트) 수상 작2차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몸을 피했던 7명의 유명 유대계 작곡가(실베르크, 실크렛, 탈스만, 미요,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토호, 스트라빈스키)들이 창세기를 소재로 만든 협력 오라토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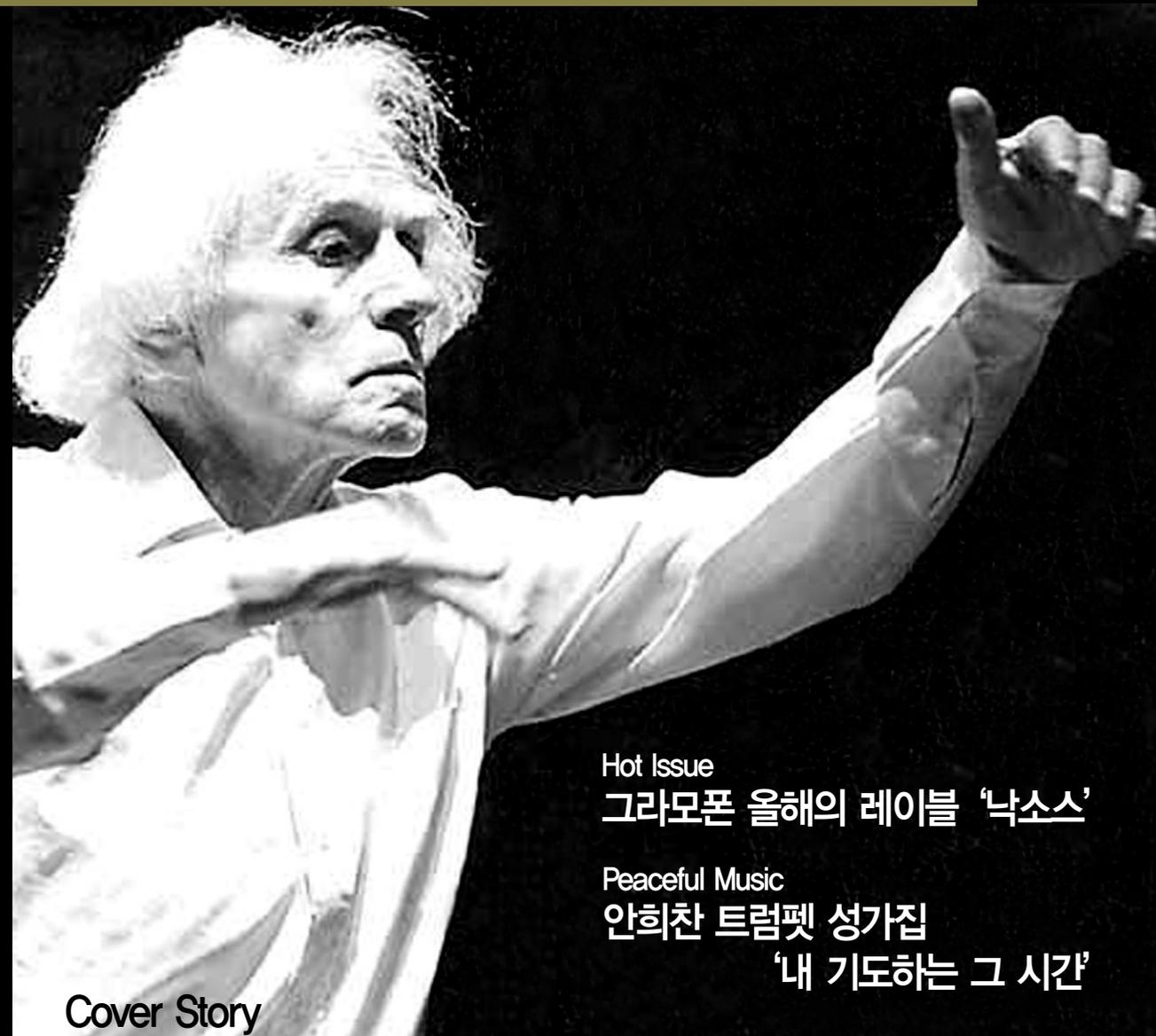
**8.110235-7(3CDs)** **Wagner: Lohengrin (3CDs)**  
Lauritz Melchior Astrid Varnay Metropolitan Opera Erich Leinsdorf  
두 바그네리언들의 역사적인 1943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실황20세기 최고의 헬렌 테너 멜히오르의 타이틀 롤과 브리짓트 닐슨과 쌍벽을 이루던 드라마틱 소프라노 바르나이의 열자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지휘를 맡았다.

## New Release

- 8.555310** Monteverdi: Madrigal Book 4  
Delitiae Musicae / Marco Longhini
- 8.557741-42** F. Couperin: Organ Mass (2CDs)  
Jean Baptisete Robin(Org)
- 8.557723** Beethoven: Piano Trio No.5 'Ghost' & 6  
Xyryon Trio(Nina Tichman(pf), Ida Bieler(vn), Maria Kliegel(vc))
- 8.557641** Bliss: Ballet 'Checkmate', Melee Fantasque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 David Lloyd Jones
- 8.557198** Britten: Violin Concerto  
Lorraine McAslan(vn) / English Chamber / Steuart Bedford
- 8.557676** Dallapiccola: Music for Violin & Piano  
Roberto Prosseda(pf) / Duccio Ceccanti(vn)
- 8.557549** Waxman: Rebecca  
Slovak Radio Symphony / Adriano
- 8.557634** Jose: Sinfonia Castellana, Evocaciones  
Alberto Rosado(pf) / Castile & Leon Symphony / Alejandro Posada
- 8.557608-09** Petitgirard: The Elephant Man (2CDs)  
Monte Carlo Philharmonic / French Opera Chours / Laurent Petitgirard
- 8.557720** Dyson: Symphony, Concerto da Chiesa  
Bournemouth Symphony / David Lloyd Jones
- 8.557427** Leyendecker: Symphony No.3, Violin Concerto  
Roland Greutter(vn) / NDR Symphony / Johannes Kalitzke
- 8.660191-92** Rossini: Opera 'La Cenerentola' (2CDs)  
Joyce DiDonato / Jose Manuel Zapata / Patrizia Cigna / Martina Borst / SWR Raidio Orchestra, Kaiserslautern / Alberto Zedda
- 8.559182** Rochberg: Symphony No.2, Imago Mundi  
Saarbrucken Radio Symphony / Christopher Lyndon Gee
- 8.559198** Thomson: Vocal & Chamber Works  
Continuum
- 8.559268** Zwilich: Violin Concerto, Rituals  
Pamela Frank(vn) / Saarbrucken Radio Symphony / Michael Stern
- 8.559456** Bernstein: Symphony No.3,Chichester Psalms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 Gerard Schwarz
- 8.559432** Great Songs of the Yiddish Stage Vol.2  
Various Artists / Vienna Chamber / Elli Jaffe
- 6.110101** Mussorgsky: Picture at an Exhibition, A Night on Bare Mountain  
(Stokowsky Arr.) SACD  
Bournemouth Symphony / Jose Serebrier
- 5.110101** 위쪽 SACD와 동일한 연주의 DVD-Audio

## Naxos Jazz Legend & Nostalgia & Musical

- 8.110307** Brahms & Dvorak: Piano Quintets  
Clifford Curzon, pf/ Budapest Quartet
- 8.110336** Great Singers: Nellie Melba Vol.3  
Nellie Melba, sop
- 8.120780** Rodgers: Carousel & Allegro  
Original Casts
- 8.120827** Jerome Kern: The Song is You - Frank Sinatra, Bing Crosby, Perry Como, Fred Astaire etc
- 8.120766** Lionel Hampton: Hey Ba Ba Re Bop  
Lionel Hampton
- 8.120770** Ted Lewis: Is Everybody Happy?  
Ted Lewis & His Band



Hot Issue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낙소스'

Peaceful Music  
안희찬 트럼펫 성가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Cover Story

# 20세기 최후의 브루크너 지휘자 게오르크 틴트너

낙소스 드디어

# 2005년 그라모폰상 '올해의 레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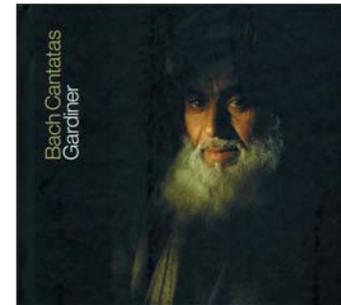


마이너 레이블의 매머드! 클래식 레이블 가운데 가장 방대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낙소스가 2005년 그라모폰 상에서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되었습니다. 낙소스를 수입, 배포하고 있는 아울로스 뮤직은 이 소식을 접하며 국내의 많은 애호가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울로스 뮤직은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얼마 전 '이달의 음반'으로 선정되었던 SDG의 바흐 칸타타(존 엘리엇 가드너 지휘)가 올해 최고의 영예인 그라모폰상 '올해의 음반'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음반이 결국 그라모폰상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군요. 이미 예측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아름다운 음반을 듣지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음반 쇼핑몰로 가보세요. 그밖에 아울

로스 뮤직이 배포하는 BBC의 DVD이며 베를리오즈 최고의 걸작 <트로이 사람들>도 이번에 그라모폰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한 것입니다. 가드너 역시 겹경사를 맞게 되었군요!



그라모폰 상 바로크 보컬 부문의 수상작으로 결정된 존 엘리엇 가드너의 바흐 칸타타 음반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물리치고 당당히 선정되었다. 2위를 했던 파비오 비온디의 음반 비발디의 <바야제>와 크리스토프 루세의 음반 쾰리의 <롤랑>이 각각 54표, 53표로 한 표 차이를 보였는데 반해, 가드너의 바흐 <칸타타>는 무려 68표를 얻어 2위와는 14표 차이를 냈다. 그라모폰은 이 아름다운 순례 음원을 '작곡가의 심장부를 탐험한 순례'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마디로 위대한 지휘자 가드너의 텍스트와 음악 텍스트추어에 대한 탁월하고 섬세한 이해의 결과다! 가드너의 뛰어난 능력은 이번에 DVD부문의 수상작으로 결정된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트로이 사람들>에서도 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페라 <트로이 사람들>은 1856년부터 1863년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작곡한 베를리오즈의 최대 걸작! 가드너는 명실상부한 이 작품의 최고 전문가다. 그의 연출은 2003년에 이미 프랑스 음악 비평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오페라 프로덕션 상'을 받기도 했었다.



SDG 101

## 칸타타 1집 : 런던 7번, 20번, 30번, 39번, 75번, 167번

Monteverdi Choir / English Baroque Soloists / Gardiner

- BWV 167 너희들 인간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 BWV 7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오셨도다
- BWV 30 기뻐하라 구원받은 무리여
- BWV 75 가난한 자는 배불리 먹으리라
- BWV 20 오 영원이여 우리같은 목소리여
- BWV 39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어라
- BWV 138 내 마음이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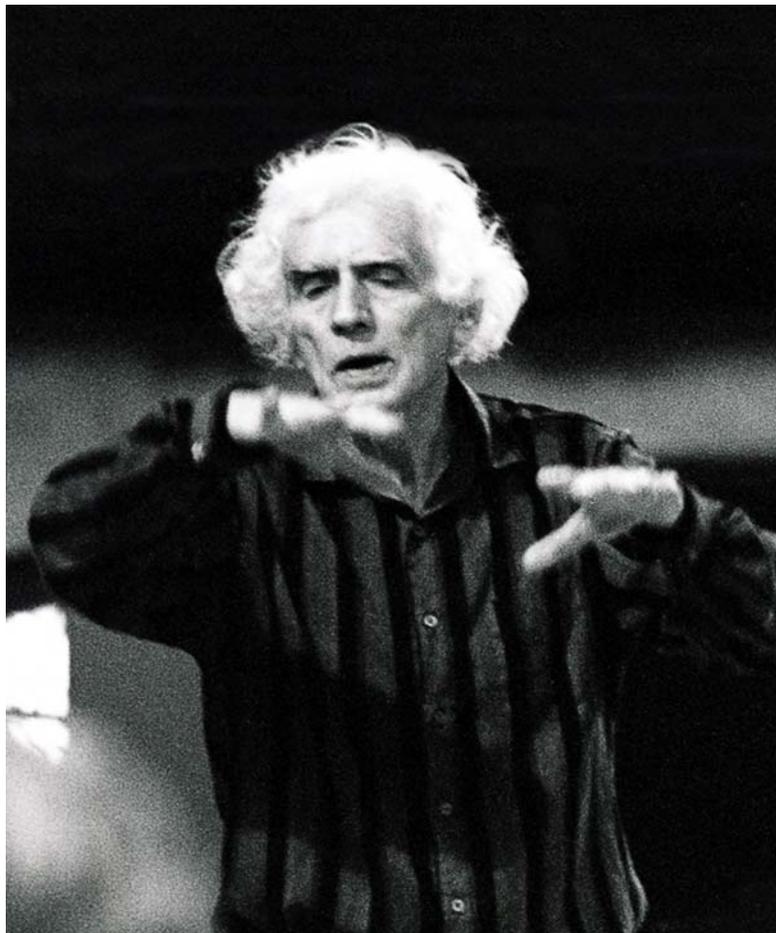
BBC/Opus Arte OA0900

## 트로이 사람들

샤를레 극장에서 웅장하게 펼쳐진 베를리오즈 탄생 200주년 기념공연 바그너를 예비한 혁신적 작곡가였던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 10월 파리 샤를레 극장에서 펼쳐진 역사적 공연을 담았다. <트로이 사람들>은 1,2막에 트로이의 멸망을, 3,4,5막에 트로이를 탈출한 영웅 에네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돈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베를리오즈 최고의 대작! 사실상 두 개의 오페라가 결합된 것이기에 상연 시간만도 4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다. 존 엘리엇 가드너 지휘의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가 베를리오즈의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에 남김없이 재현한 가운데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카산드라), 수잔 그레이엄(디돈), 그레고리 쿤데(에네) 등 초대형 가수들이 열연을 펼친다. 거대한 반사경을 무대 뒤에 비스듬히 세워 등장인물들의 뒷모습까지 포착한 탁월한 무대 연출, 엑토르의 유령과 말의 질주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첨단 영상장치 등 현대적 연출의 총화일 뿐 아니라 무려 56분짜리의 흥미진진한 제작 다큐멘터리가 스페셜 피쳐로 제공된다.

20세기 최후의 브루크너 지휘자

# 게오르크 틴트너 Georg Tintner



제프 마르크스한테 체계적인 작곡 공부를 했다. 자신의 작곡실력이 탄탄해지자 틴트너는 오히려 작곡가로서의 길을 접고 펠릭스 바인가르트너한테 가서 지휘 수업을 받았다. 그의 지휘 실력은 10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는데, 18세 때에 빈 소년 합창단을 훈련하는 지휘자로서 일했고, 이듬해 1936년에는 브루노 발터가 연주하는 말러 교향곡 8번을 위해 합창단을 직접 훈련 시키기도 했다.

1938년에 나치를 피해 영국에서 1년 정도를 보내다가 뉴질랜드로 이주한 틴트너는 동물들을 기르며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는데, 이 전원생활을 계기로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1954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오페라의 상임지휘자 직을 맡았고 곧 엘리자베스 오페라의 지휘자로 부임했다. 60,70년대를 통해 그의 지휘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경력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1964년 뉴질랜드 오페라의 음악 감독을 지

냈는가 하면, 1966년부터 67년까지 1년간은 케이프 타운 시립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역임했다. 이때 계약 연장의 제의가 있었으나 틴트너는 정치적인 이유로 바로 사임했고, 대신 영국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즈,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노던 심포니아, BBC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영국의 우수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1970년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온 그는 서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의 음악 감독을 했고, 1971년에는 캐나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추대되었다. 틴트너는 특히 젊은 음악가들과 잘 통하는 사람이어서 여러 청

소년 오케스트라들과 많은 콘서트를 열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는 캐나다에서 번스타인처럼 영어로 진행되는 콘서트 강좌로 꽤 유명해졌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틴트너를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로서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아무 때나 기회가 되면 바로 지휘할 수 있는 오페라가 무려 56편이나 되고 그 중에서 3분의 2는 정도는 암보로 지휘할 수 있었다. 1974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의 수석 상임 지휘자로 2년간 일한 후 틴트너는 1976년부터는 퀘스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았고, 1987년 말 캐나다로 이주해서 노바 스코티아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에 취임했다.

그의 주요 경력들은 대략 이상과 같다. 그런데 그의 경력은 우리의 그를 아는 정도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소스의 브루크너의 교향곡이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와 연결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면서도 세계의 중심 악단과의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고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악단과의 활동은 대개 객원 지휘자로서의 그것뿐이었으며 그의 중요한 경력의 대부분이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악단의 지휘자로서의 그것들이었다.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틴트너는 많은 녹음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음악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발매된 낙소스의 음반들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가 전 세계 애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끈 것은 낙소스에서 발매한 일련의 브루크너의 교향곡 음반들이었다. 그의 브루크너 음반이 영국의 클래식 음반지 그라모폰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등극하면서 일기 시작한 틴트너 열풍은 일파만파 번졌고, 많은 애호가들로 하여금 이어 발매되는 그의 음반들을 모두 사 모으게 되었다. 틴트너의 음반이 요훤, 카라얀, 뱀 등 수많은 거장들의 많은 명반들을 두루 경험했던 브루크너 비평가들의 수준 높은 귀까지도 많이 놀라게 했음은 외국 음악언론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사실이다.

‘그의 음원이 브루크너뿐이냐’ 하며 애호가들의 불만과 소망이 팽배해있던 시점에 낙소스는 그의 다른 음원들을 차곡차곡 발매해 총 12개 타이틀의 틴트너 추모 에디션까지 선보였다. 추모 에디션은 제 8권과 9권을 제외하고 최 만년의 기록, 즉 노바 스코티아 교향악단의 지휘자 시절의 음원이다. 오랫동안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많은 경험을 했던 그가 남긴 최후의 기록들인 만큼 우리는 그것들에서 아주 원숙한 지휘를 만나게 된다. 그 음원들을 차례차례 들으며 우리는 그가 단지 브루크너 음악에만 특별한 재능을 보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명쾌하게 확인한다. 틴트너 열풍을 잘 모르는 애호가들도 낙소스의 저가 음반에 등장한 이 위대한 거장의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란다. 우선 브루크너부터 시작해도 좋겠다. 왜 그의 브루크너 음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이유를 깨닫게 되리라.

그의 음원이 브루크너뿐이냐 하며 애호가들의 불만과 소망이 팽배해있던 시점에 낙소스는 그의 다른 음원들을 차곡차곡 발매해 총 12개 타이틀의 틴트너 추모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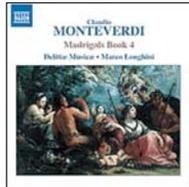
## 게오르크 틴트너 디스코그래피

8.554432	BRUCKNER: Symphony No. 00, 'Study Symphony', WAB 99 / Finale to Symphony No. 4, 'Volkfest', WAB 104
8.554430	BRUCKNER: Symphony No. 1, WAB 101 / Adagio to Symphony No. 3, WAB 103
8.554006	BRUCKNER: Symphony No. 2, WAB 102
8.553454	BRUCKNER: Symphony No. 3, WAB 103
8.554128	BRUCKNER: Symphony No. 4, 'Romantic', WAB 104
8.553452	BRUCKNER: Symphony No. 5, WAB 105
8.553453	BRUCKNER: Symphony No. 6, WAB 106
8.554269	BRUCKNER: Symphony No. 7, WAB 107
8.554215-16	BRUCKNER: Symphony No. 8, WAB 108 / Symphony No. 0, 'Nulite', WAB 100
8.554268	BRUCKNER: Symphony No. 9, WAB 109
8.501101	BRUCKNER: THE COMPLETE SYMPHONIES
9.40012	Essential Brahms: Serenades
9.40011	Essential Brahms: Symphonies Nos. 3 and 4

## 틴트너 추모 에디션(전 12권)

8.557233	제 1권 - 모차르트: 교향곡 31번 '파리', 35번 '하프너', 40번
8.557234	제 2권 -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9번 '그레이트' (슈베르트 음악을 소개하는 틴트너의 육성 포함)
8.557235	제 3권 - 베토벤: 교향곡 4번, 슈만: 교향곡 2번 (베토벤과 슈만의 교향곡을 소개하는 틴트너의 육성 포함)
8.557236	제 4권 - 하이든: 교향곡 103번 '큰북 연타', 104번 '런던' (하이든 음악을 소개하는 틴트너의 육성 포함)
8.557237	제 5권 - 브람스: 교향곡 3번, 세레나데 2번 (브람스의 음악을 소개하는 틴트너의 육성 포함)
8.557238	제 6권 -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시벨리우스: 교향곡 7번
8.557239	제 7권 - 모차르트: 이도메네오 서곡, 교향곡 34번, 41번 '주피터' (모차르트의 음악을 소개하는 틴트너의 육성 포함)
8.557240	제 8권 - 슈트라우스: 돈 후안, 말러 교향곡 1번
8.557241	제 9권 - 말러: 교향곡 10번(아다지오), 쇤베르크 정화된 밤, 슈트라우스: 킬 오일렌슈피겔
8.557242	제10권 - 말러: 전주곡, 라 캄리나, 천국의 정원으로 가는 길 등
8.557243	제11권 - 모차르트: 발레 음악 '르 프티트 리옹', 독일 무곡 등
8.557244	제12권 - 그레인저: 시골 춤, 인터메초 등

Naxos New Releases



Naxos 8.555310

Monteverdi: Madrigal Book 4

Delitiae Musicae / Marco Longhini

델리타에 무지카의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시리즈 호평 속에 진행 중인 델리타에 무지카의 몬테베르디 시리즈. 마드리갈 4권을 담은 이번 신보 역시 마드리갈 연주로는 이색적인 남성들만의 편성으로 색다른 미감을 연출해내었다.



Naxos 8.557723

Beethoven: Piano Trio No.5 'Ghost' & 6

Xyryon Trio(Nina Tichman(pf), Ida Bieler(vn), Maria Kliegel(vc))

여성 트리오의 섬세함으로 풀어낸 베토벤 저음역의 으스스한 트레몰로 덕분에 '유령'이라는 부제로 유명한 Op.70-1과 작곡가의 가장 섬세한 작품인 Op.70-2는 베토벤의 중기를 대표하는 실내악들. 첼리스트 크리겔을 중심으로 한 자리온 트리오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198

Britten: Violin Concerto

Lorraine McAslan(vn) / English Chamber / Stuart Bedford

Penguin Record Guide Rosette 선정음반 콜리슨 음반의 리바이벌 발매반, 영국 최고의 브리튼 스페셜리스트 베드포드의 이름값에 부응하는 명연으로 펄컨 가이드에서 최고의 음반으로 선정되었던 바로 그 연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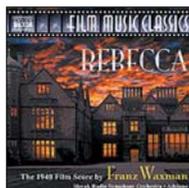


Naxos 8.557676

Dallapiccola: Music for Violin & Piano

Roberto Prosseda(pf) / Duccio Ceccanti(vn)

달라피콜라(1904-75)는 20세기 이탈리아의 현대음악계를 대표하였던 대작곡가였다. 초기에는 신고전주의 경향을 보였으나 30년대부터 12음기법을 자신의 음악세계에 접목시켰다.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은 타르티니, 파가니니와 같은 자국의 대선배들에게 바치는 그의 헌정사와 같은 작품들이다.



Naxos 8.557549

Waxman: Rebecca

Slovak Radio Symphony / Adriano

프란츠 왁스만은 그 외에도 '젊은이의 양지', '선셋대로', '17포로수용소', '이창', '대장부리바' 등의 명화들의 음악을 담당했던 헐리웃의 거장이었다. 그가 음악을 담당했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1940년 영화 '레베카'는 귀에 쫓겨 들어오는 감칠맛 나는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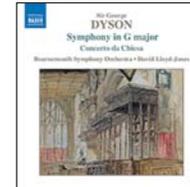


Naxos 8.557608-09(2CDs)

Petitgirard: The Elephant Man (2CDs)

Monte Carlo Philharmonic / French Opera Chours / Laurent Petitgirard

다발성 신경섬유증증 때문에 괴물과 같은 외모로 '엘리펀트 맨'이라 불리던 조셉 메릭의 비극적인 삶은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휘자 겸 작곡가 프티기라르가 이를 오페라로 엮었다. 흑암색의 독특한 음색으로 유명한 나탈리 슈투츠만이 타이틀롤을 감동적으로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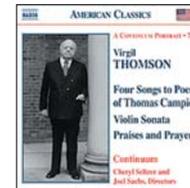


Naxos 8.557720

Dyson: Symphony, Concerto da Chiesa

Bournemouth Symphony / David Lloyd Jones

다이슨의 유일한 교향곡은 초연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나, 지금은 20세기 영국 교향곡의 최고 걸작의 하나로 재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서늘한 풍광과 눈부신 관현악 효과는 시벨리우스, 보로딘, 립스키코르사코프 등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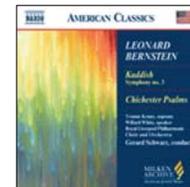


Naxos 8.559198

Thomson: Vocal & Chamber Works

Continuum

미국의 현대 실내악을 개척하고 있는 콘티눔의 7번째 음반. 미국 음악비평계의 태두이자 작곡가로도 맹활약했던 버질 톰슨의 가곡과 실내악 작품들을 모았다. 신남만주의 성향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비롯하여 미국 정신에 충만한 그의 작품세계가 펼쳐진다.



Naxos 8.559456

Bernstein: Symphony No.3, Chichester Psalms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 Gerard Schwarz

번스타인의 세번째 교향곡은 유대인들의 추도 기도문을 뜻하는 '카디쉬'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으로서의 작곡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 작곡가의 가장 인기있는 종교합창곡인 '치체스터 시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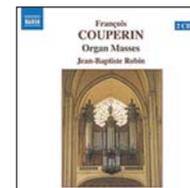


Naxos 8.559432

Great Songs of the Yiddish Stage Vol.2

Various Artists / Vienna Chamber / Elli Jaffe

유대 무대 음악을 담은 두 번째 음반 1938년 미국 히트 퍼레이드 차트의 1위를 차지했던 'Bay Mir Bistu Sheyn'을 비롯한 다양한 개성의 미국 유대인들의 무대 음악들을 급세기 최고의 칸토르 사이먼 스피로를 비롯한 정상급 유대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녹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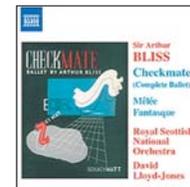


Naxos 8.557741-42(2CDs)

F. Couperin : Organ Mass (2CDs)

Jean Baptisete Robin (Org)

대 쿠프랭의 오르간을 위한 미사 프랑수와 쿠프랭은 22세 되던 해인 1690년에 각각 수도원과 교구를 위한 두 편의 오르간 미사를 작곡하였다. 이들은 미사 동안 불리는 플레인 찬트를 독립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들로 가장 종교적인 악기인 오르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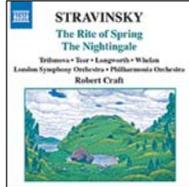


Naxos 8.557641

Bliss: Ballet 'Checkmate', Melee Fantasque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 David Lloyd Jones

영국 근대 관현악의 대표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아서 블리스의 발레음악 두 작품을 모았다. 작곡가의 첫 관현악 작품인 'Melee Fantaque'는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이 드러나는 작품. 영국 발레의 대가인 니넷 드 발르와를 위한 작품인 '체크메이트'에서는 작곡가 특유의 색채적인 관현악법이 단연 돋보인다.



Naxos 8.557501

**Stravinsky: The Rite of Spring, Nightingale**

London Symphony & Philharmonia / Robert Craft

위대한 스트라빈스키 스페셜리스트의 드라마틱한 봄의 제전 로버트 크래프트의 스트라빈스키 시리즈를 주목하고 있던 이들이라면 이번 '봄의 제전'에 큰 반가움을 느낄 것이다. 많은 해외 평론가들이 가장 역사이팅한 연주라고 평해왔던 그 연주의 실체를 직접 느껴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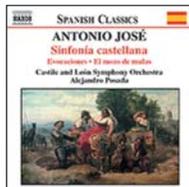


Naxos 8.557132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블라디미르 호로비츠(피아노) / 프리츠 라이너/RCA 빅터 심포니

호로비츠와 라이너의 만남, 그리고 이들 황금 콤비가 연주하는 베토벤과 라흐마니노프. 가장 인기 높은 두 협주곡은 호로비츠와 라이너의 뛰어난 연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행운이다. 라흐마니노프는 1951년, 베토벤은 1952년의 녹음으로 한창 물오른 호로비츠의 명인기가 눈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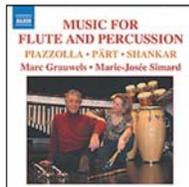


Naxos 8.557634

**Jose: Sinfonia Castellana, Evocaciones**

Alberto Rosado(pf) / Castile & Leon Symphony / Alejandro Posada

비운의 스페인 작곡가의 이국적인 교향곡 안토니오 호세는 스페인 내전 중 34세의 젊은 나이로 처형된 비운의 작곡가. 그의 카스틸리안 교향곡은 브루고스 지방의 민족색과 드뷔시의 색채적인 관현악법이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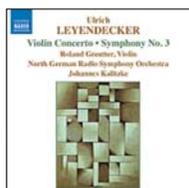


Naxos 8.557782

**Music for Flute & Percussion**

Marc Grauwls(fl) / Marie Josee Simard(percc)

내한 공연의 감동을 고스란히 이어줄 음반 8월 19일 내한공연을 가졌던 벨기에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마크 그로웰의 신보, 피아졸라, 라비 샹가, 패르트, 케이크 아베 등의 형형색색의 작품들을 플루트와 퍼커션의 색다른 이중주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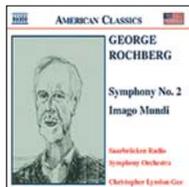


Naxos 8.557427

**Leyendecker: Symphony No.3, Violin Concerto**

Roland Greutter(vn) / NDR Symphony / Johannes Kalitzke

레옌데커(46년생)는 전위음악을 지양하고 과거의 전통에 입각한 보수적인 음악관으로 승부하는 독일의 현대 작곡가이다. 교향곡, 협주곡과 같은 전통적인 장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협주곡과 교향곡 2번 모두 이 작곡가의 독특한 미학을 드러낸다.



Naxos 8.559182

**Rochberg: Symphony No.2, Imago Mundi**

Saarbrücken Radio Symphony / Christopher Lyndon Gee

2005년 5월에 세상을 떠난 조지 록버그. 그는 합성예술(ars combinatoria)의 주창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61년에 초연된 교향곡 2번은 그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어지러운 혼돈을 꿰뚫고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이다. 'Imago Mundi'는 일본의 가가쿠음악을 염두에 둔 독특한 교향시이다.



Naxos 8.559268

**Zwilich: Violin Concerto, Rituals**

Pamela Frank(vn) / Saarbrücken Radio Symphony / Michael Stern

엘렌 즈월리치(39년생)는 풀리처음악상 최초의 여성수상자였으며, 4번이나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의 중견작곡가이다. 그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두고 뉴욕 타임즈는 '바이올린을 향한 러브송'이라고 평했으며, 특히 바흐의 샤콘느에 기초한 2악장이 흥미롭다.



Naxos 8.559442

**Various Composers: Genesis Suite**

Berlin Radio Symphony / Gerard Schwarz

2005년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프로듀서(데이빗 프로스트) 수상작 2차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몸을 피했던 7명의 유명 유태계 작곡가(쇤베르크, 실크렛, 탄스만, 미요,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토흐, 스트라빈스키)들이 창세기를 소재로 만든 협력 오라토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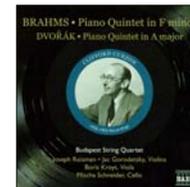


Naxos 8.110235-37(3CDs)

**Wagner: Lohengrin (3CDs)**

Lauritz Melchior / Astrid Varnay / Metropolitan Opera / Erich Leinsdorf

두 바그네리언들의 역사적인 1943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실황 20세기 최고의 헬렌 테너 멜히요르의 타이틀 롤과 브리짓 닐슨과 쌍벽을 이루던 드라마틱 소프라노 바르나이의 엘자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지휘를 맡았다.



Naxos 8.110307

**Brahms & Dvorak: Piano Quintets**

Clifford Curzon(pf) / Budapest Quartet

클리포드 커즌과 부다페스트 사중주단의 완벽한 만남 낙소스의 두 번째 커즌 음반, 부다페스트 사중주단과 협연한 브람스(1950년)와 드보르작(1953년)의 피아노 오중주를 담았다.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은 역사적인 명연.



Naxos 8.110336

**Great Singers: Nellie Melba Vol.3**

Nellie Melba(sop)

낙소스의 넬리 멜바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남자 가수로 엔리코 카루소가 있었다면 여자 가수의 대표주자로는 넬리 멜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신보에는 1910-16년 사이의 미국에서의 레코딩들을 모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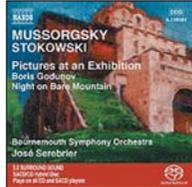
Naxos 8.660191-92(2CDs)

**Rossini: Opera 'La Cenerentola' (2CDs)**

Joyce DiDonato / Jose Manuel Zapata / Patrizia Cigna / Martina Borst / SWR Raidio Orchestra, Kaiserslautern / Alberto Zedda

체네티렐라(신데렐라)는 로시니의 오페라 부파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선율들로 가득한 작품. 2004년 로시니 인 빌트바트 축제 일환으로 원로 로시니 전문 지휘자 알베르토 체다의 지휘 아래 새로운 로시니 히로인 조이스 디도나토가 매력적인 재투성이 아가씨를 노래한다.

**Naxos SACD**



Mussorgsky: Picture at an Exhibition,  
A Night on Bare Mountain (Stokowsky Arr.)

Bournemouth Symphony / Jose Serebrier

라벨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은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을 도회지의 세련미로 채색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작품 내면의 러시아적 정취는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스토코프스키는 러시아색채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편곡을 완성하였다. '민중산의 하룻밤' 역시 만화 '판타지아'에 수록되었던 스토코프스키의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Naxos 6.110101

**Naxos Jazz Legend & Nostalgia & Musical**



Lionel Hampton: Hey Ba Ba Re Bop

Lionel Hampton

2002년 93세로 세상을 떠났던 라이오넬 햄튼은 재즈계를 대표하는 비브라폰의 거장이었다. 그가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1941-1951년에 남긴 값진 기록들을 이 음반에 갈무리하였다.

Naxos 8.120766



Ted Lewis: Is Everybody Happy?

Ted Lewis & His Band

테드 루이스와 그의 악단은 글렌 밀러에 앞서 재즈 & 댄스 밴드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주인공들이다. 리더였던 테드 루이스는 재기넘치는 클라리넷 연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베니 굿맨이 가장 존경했던 선배 아티스트가 바로 그였다. 2,30년대의 고풍스러운 향취를 가득 머금은 추억의 음반.

Naxos 8.120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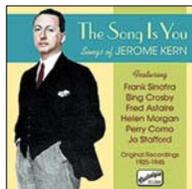


Rodgers: Carousel & Allegro

Original Casts

제롬 컨의 사망 후 해머스타인의 파트너가 되었던 로저스. 이들 콤비는 '남태평양', '왕과 나',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의 뮤지컬의 고전들을 쏟아내면서 브로드웨이의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945년 작품인 'Carousel' 역시 이들의 대표작으로 오리지널 출연진을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Naxos 8.120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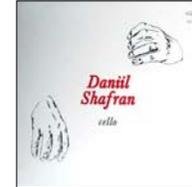
Jerome Kern: The Song is You

Frank Sinatra, Bing Crosby, Perry Como, Fred Astaire etc

오스카 해머스타인과 콤비를 이루어 '쇼보트' 등의 걸작 뮤지컬을 만들었던 '브로드웨이의 제왕' 제롬 컨. 그가 남긴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 히트작들을 엄선하였다. 프랭크 시나트라, 빙 크로스비, 페리 코모 등등의 추억의 목소리들이 함께 하였다. 스탠더드 팝의 고전 'The song is You' 수록.

Naxos 8.120827

**Melodiya New Releases**



Daniil Shafran Box Set (5CDs)

- CD1.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슈만: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드뷔시: 첼로소나타
- CD2. 쇼팽: 첼로소나타, 라흐마니노프: 첼로소나타
- CD3. 브람스: 첼로소나타 1, 2번, 친카체: 첼로 소품집
- CD4.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 모음곡, 프로코피에프: 첼로소나타, 쇼스타코비치: 비올라소나타(첼로편곡)
- CD5. 보케리니: 첼로협주곡 Bb장조, 하이든: 첼로협주곡 2번, 차이코프스키: 로코코변주곡

MEL CD 10 00710(5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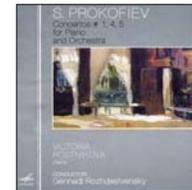


JS 바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BWV1060-62, 피아노협주곡 BWV1055

라리사 데도바, 미하일 볼초크, 타티야나 니콜라예바(pf) / 리투아니아 체임버

데도바와 볼초크는 1972년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던 연주자들로, 이후 의기투합하여 피아노듀오로 활동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이들의 기민한 호흡을 이 음반을 만나볼 수 있다. BWV1055는 바흐 스페셜리스트 니콜라예바의 연주로 담았다.

MEL CD 10 00211



프로코피에프: 피아노협주곡 1,4,5번

빅토리아 포스트니코바 / 소련 문화성 오케스트라 / 게나디 로제스트벤스키

포스트니코바는 1966년 리즈콩쿠르 2위, 1970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를 차지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류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특히 대 지휘자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의 부인이기도 하다. 80년대 중반에 완성된 이 프로코피에프 피아노협주곡집은 이들 부부의 금슬을 음악 속에 녹여낸 명연이다.

MEL CD 10 00203



글린카, 루빈시타인, 쇼스타코비치: 비올라소나타

표도르 드루지닌(비올라)

표도르 드루지닌은 소련의 대표적인 비올라 연주가이다. 그는 쇼스타코비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모스크바 베토벤 사중주단의 멤버였고, 모스크바음악원의 비올라 파트의 수장으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쇼스타코비치의 소나타를 초연한 장본인 역시 드루지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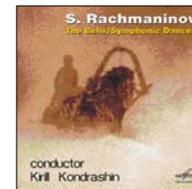
MEL CD 10 00867



러시아 피아노스쿨 1집 - 하인리히 노이하우스(겐리히 네이가우스)  
모차르트 소나타K448, 드뷔시 전주곡, 프로코피에프 환상

네이가우스(1888-1964)는 길렐스와 리히터를 길러낸 명실상부한 러시아 피아노 악파의 대부였다. 또한 그는 부닌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는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연주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 본 음반에는 그가 즐겨 연주했던 모차르트, 드뷔시, 프로코피에프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MEL CD 10 00746



라흐마니노프: 심포닉 댄스, 중

키릴 콘드라신 / 모스크바 필하모닉

1940년에 작곡된 심포닉 댄스는 라흐마니노프의 최만년의 작품으로 그레고리안 찬트 '진노의 날'의 선율에 대한 그의 고집스러운 집착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작품이다. 큰 스케일의 합창교향곡 '중'이 함께 수록되었다. 보중수표와도 같은 키릴 콘드라신의 1963년 녹음.

MEL CD 10 00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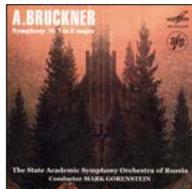


**보로딘: 현악사중주 1, 2번**

보로딘 현악사중주단(오리지널 멤버)

수차에 이르는 멤버교체를 거치면서 러시아 실내악의 전통을 오늘까지 계승해오고 있는 보로딘 현악사중주단. 이 음반은 오리지널 멤버들의 의한 1958년 녹음을 담았다.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온 두 작품에 임하는 이들의 태도가 남달랐을 것이며, 그 연주결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으로 후대에 남겨졌다.

MEL CD 10 00942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마크 고렌슈타인 / 러시아 스테이트 아카데미 심포니

마크 고렌슈타인은 1989년 부산시향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함으로써 국내음악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러시아의 지휘자이다. 그가 이끄는 러시아 스테이트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정통 독일 심포니의 대명사인 브루크너의 교향곡에 도전하였다.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이 음반에서 얻게될 것이다.

MEL CD 10 00850



**The Art of Emil Gilels (5CDs)**

- CD1. 스카를라티 소나타, CPE 바흐 소나타, 하이든 소나타
- CD2. 리스트 소나타, 쇼팽 소나타 2번, 슈만 소나타 1번
- CD3. 베토벤 소나타 28번, 슈만 프레스토 파쇼나,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8번
- CD4. 글라주노프 소나타 2번,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2번, 발라키레프 이슬라메이
- CD5. 앙코르 소품 모음집

MEL CD 10 00716(5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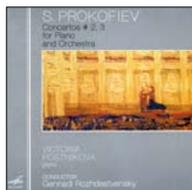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242**

타티아나 니콜라에바, 엘리스 비르살라제, 니콜라이 루간스키(pf) / 리투아니아 체임버

바흐 스페셜리스트이자 러시아 피아노의 대모 니콜라에바, 1962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와 1966년 슈만 콩쿠르 우승자인 그루지아의 여걸 비르살라제,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젊은 사자 루간스키를 이 음반에서 함께 만난다. 리투아니아의 음악원로 손택스키스가 이들과 협연하였다.

MEL CD 10 00037



**프로코피에프: 피아노협주곡 2, 3번**

빅토리아 포스트니코바 / 소련 문화성 오케스트라 / 게나디 로제스트벤스키

포스트니코바는 1966년 리즈콩쿠르 2위, 1970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를 차지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류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특히 대 지휘자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의 부인이기도 하다. 80년대 중반에 완성된 이 프로코피에프 피아노협주곡집은 이들 부부의 금슬을 음악 속에 녹여낸 명연이다.

MEL CD 10 00204



**왕벌의 비행, 시곡, 꿈을 따라서, 헝가리랩소디2번, 로망스 외**

로디온 아자르킨(더블베이스)

로디온 아자르킨은 쇼스타코비치의 절찬을 이끌어내었던 더블베이스 비르투오조였다. 그의 뛰어난 기교는 쿠세비츠키 이후 최고의 더블베이스 솔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둔중한 이 악기에 화려한 명인기를 부여하였다. 이 음반을 통해 더블베이스의 놀라운 변신을 확인해보시라.

MEL CD 10 00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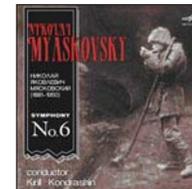


**러시아 피아노스쿨 2집 (블라디미르 소프로니츠키) (2CD)**

슈베르트 즉흥곡, 슈만 소나타 1번, 쇼팽 아상곡, 스크리아빈 소나타4번 외

블라디미르 소프로니츠키(1901-61)은 이제 전설이 되어버린 이름이다. 스탈린 치하의 심한 규제 덕분에 서구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으나 길렐스와 리히터에 앞서 소련 피아노계를 대표했던 위대한 연주가였다. 특히 스크리아빈의 작품들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의 소중한 기록들을 2장의 음반에 간추렸다.

MEL CD 10 00747(2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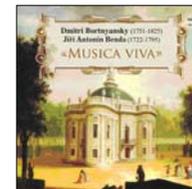


**미야스코프스키: 교향곡 6번**

키릴 콘드라신 / 모스크바 필하모닉

미야스코프스키는 27편의 교향곡을 완성했던 구소련의 대표적인 심포니스트였다. 비록 쇼스타코비치의 명성에 가려져 아직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나, 그의 교향곡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구소련의 음악적 정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1978년에 녹음된 콘드라신의 이 연주는 최초로 CD발매되는 음원이다.

MEL CD 10 00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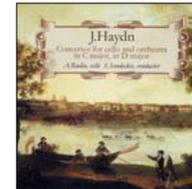


**보트랴스키, 벤다: 18세기 교향곡집**

사울리우스 손택키스 / 무지카 비바

국민악파가 태동하기 이전까지 러시아는 서양음악사의 관심권 밖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음악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보트랴스키는 고전시대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작곡가였다. 그의 교향곡을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 벤다의 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다.

MEL CD 10 00922



**하이든: 첼로협주곡 1,2번**

알렉산더 루딘(vc) / 무지카 비바 / 사울리우스 손택키스

알렉산더 루딘은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1976), 카사도 콩쿠르(1979), 차이코프스키 콩쿠르(1978,1982)에 차례로 입상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첼리스트이다. 현재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의 교수이며, 2002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현악 연주가이다.

MEL CD 10 00940

**MDG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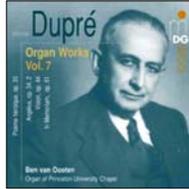


**페르디난트 폰 프로이센: 피아노 트리오 전집 Vol.1**

Trio Parnassus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조카인 페르디난트 폰(公)은 아마추어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도 상당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독일 실내악의 명가 MDG의 핵심 앙상블인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뛰어난 연주가 새로운 작곡가를 만나는 반가움을 한층 배가시킨다.

MDG 303 13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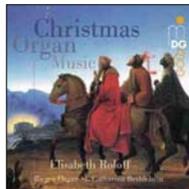


MDG 316 1289-2

**뒤프레: 오르간 작품집 Vol.7**

Ben van Oosten(organ)

뒤프레 스페셜리스트로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벤 반 오스텐의 일곱번째 뒤프레 음반이다. 오스텐은 이번 음반을 위해 작곡가가 미국 연주여행 당시 연주했었던 악기인 프린스턴대학 채플의 오르간을 선택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모티브를 얻은 대작 '비전' 과 친숙한 코랄 편곡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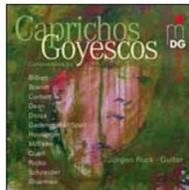
MDG 320 1345-2

**크리스마스 오르간 뮤직:**

길망, 파리벨리 다 팔코나라, 보시, 브람스, 레거, 보엘만, 플루리, 물레의 오르간작품들

Elisabeth Roloff(organ)

베를레헴의 성탄기념교회인 성 카타리나 교회의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관련 작품들.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아라 용사' 를 편곡한 길망의 작품을 비롯하여, 브람스, 레거, 보엘만 등의 오르간 작품들이 성탄의 경건한 감동을 한층 짙게 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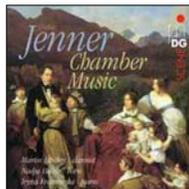


MDG 603 1341-2

**Caprichos Goyescos Vol.1: 슈나이더, 딘, 호이싱어, 밀켄, 셔만, 웨르, 코르벳, 빌리안, 브렌트, 도자, 로이코의 기타 작품집**

Jurgen Ruck(guitar)

82점의 동판화로 구성된 고야의 만년 걸작 '카프리초스' 는 그라나도스,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와 같은 작곡가들의 창조적 영감을 제공했던 작품집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13명의 현대작곡가들의 기타작품들 역시 '카프리초스' 를 음악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현대 기타음악의 다양한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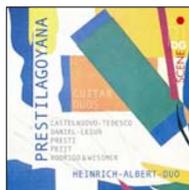


MDG 603 1343-2

**구스타프 예너: 실내악 작품집**

Martin Litschgi(cl) / Nadja Helble(hrn) / Iryna Krasnovska(pf)

구스타프 예너는 브람스가 받아들였던 유일한 작곡제자였다. 클라리넷, 혼, 피아노의 독특한 편성의 삼중주와 클라리넷 소나타에서 까다로운 합부르크 출신의 대작곡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예너의 비범한 재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MDG 603 1348-2

**Prestilagoyana: 프티, 프레스티,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다니엘 레쉬르, 비스메르, 로드리고의 기타 작품들**

Heinrich Albert Duo

1952년 이다 프레스티는 이집트 출신의 기타리스트 알렉산드르 라고야를 만나 기타 듀오 프레스티/라고야를 결성하였다. 60년대를 풍미하던 이들 듀오는 1967년 프레스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게 된다. 하인리히 알베르트 듀오가 이 위대한 선배 듀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그들의 단골 레퍼토리를 새롭게 녹음하였다.



MDG 604 1350-2

**리스트/바그너: 밤의 찬가 (피아노작품집) / 트리스탄과 이졸데**

Jean Dfflam Bavouzet(piano)

라벨의 피아노작품집으로 디아파송 금상, CHOC상 등을 수상했던 프랑스 피아니스트 장 에플람 바부제의 두 번째 MDG 레코딩. 밤을 소재로한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들과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의 피아노 편곡을 함께 담았다. 특히 리스트의 '대협주곡 솔로' 의 오리지널 버전은 세계최초로 레코딩된 것이다.



MDG 606 1334-2

**리스트: 오르간 작품집 Vol.1(Hommage to Bach)**

Michael Schoenheit(organ)

이 음반은 바흐에 대한 리스트의 존경심을 담았다. 바흐의 이름(B-A-C-H)의 네 음을 모티프로 한 전주곡과 푸가 외에도 바흐의 작품들을 편곡함으로써 선배의 탁월한 음악세계를 높이 기렸다. 1697년에 완성된 메르세부르크 대성당의 오르간의 장중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MDG 613 1322-2

**아시아 피아노 아방가르드 (인도네시아): Soegijo, Sjukur, Asmara, Marching, Ekagustiman의 피아노 작품들**

Steffen Schleiermacher, piano

슈테판 슈라이어마허는 2005년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 국내애호가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던 현대피아노음악의 스페셜리스트이다. 본 음반에서는 5명의 인도네시아의 현역작곡가들의 개성만점의 피아노음악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믈란음악을 비롯한 자국의 독특한 음악적 전통에 기초한 이색적인 음악적 감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MDG 613 1333-2

**스트라빈스키 추모음반: 스트라빈스키, 베리오, 데니소프, 볼레즈, 슈니트케, 카터의 작품들**

Ensemble Avantgarde

스트라빈스키는 다수의 중요결작들 외에도 수많은 소품들을 양산하였는데,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했던 작곡가의 음악세계가 소품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본 음반에는 이러한 스트라빈스키의 주요 소품들과 베리오, 볼레즈, 슈니트케, 카터 등의 스트라빈스키를 위한 작품들이 현대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SDG New Releases**



SDG 110(2CDs)

**삼위일체일 후 19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C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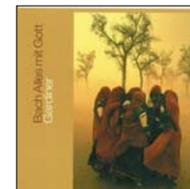
- BWV48 나는 불행한 자, 누가 나를 구원하리
- BWV5 나 어디로 피할 것인가
- BWV90 무서운 종말이 너에게 다가왔다
- BWV56 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노라

**종교개혁축일을 위한 칸타타(CD 2)**

- BWV79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며 방패이시라
- BWV80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BWV192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Solists:

Joanne Lunn(sop) / William Tower(alt) / James Gilchrist(te) / Peter Harvey(bass)



SDG 114

**빌헬름 에른스트 공작을 위한 생일축가**

BWV1127 -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함이요(2005년 6월에 발견된 바흐의 새로운 칸타타)

엘린 마나한 토마스(소프라노) / 몬테베르디 콰이어,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드너 + 바흐 칸타타 순례의 하이라이트 모음 크리스마스를 위한 칸타타**

카타린 푸지, 조안 룬(소프라노) / 로빈 타이슨, 윌리엄 타워(알토) / 제임스 질크리스트(테너) / 피터 하비(베이스) / 몬테베르디 콰이어 /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드너

- BWV91 예수 그리스도여, 찬송을 받으소서
- BWV110 우리들 입가에 웃음이 넘치게 하소서, 크리스마스 다음날을 위한 칸타타
- BWV40 저 곳에 주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 BWV121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다

SDG 113

» Also Availables «



- BWV 167 너희들 인간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 BWV 7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오셨도다
- BWV 30 기뻐하라 구원받은 무리여
- BWV 75 가난한 자는 배불리 먹으리라
- BWV 20 오 영원이여 우리같은 목소리여
- BWV 39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어라
- BWV 138 내 마음이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SDG 101



- BWV 51 만민이여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라
- BWV 99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 II
- BWV 161 오라 달콤한 죽음의 시간이여
- BWV 95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요
- BWV 27 내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누가 알랴
- BWV 8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저는 언제 죽게 되나йка?

SDG 104



- BWV 12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도다
- BWV 103 너희는 울며 부르짖으리라
- BWV 146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리라
- BWV 166 너는 어디로 가느냐?
- BWV 108 내가 이 세상을 떠남은 너희를 위함이라
- BWV 117 지고의 선에 찬미와 영광 있으라

SDG 107

**KKV(Kirkelig Kulturverksted) New Releases**



**손드레 브라트란드: 고향 노래를 불러주오**

손드레 브라트란드가 불러주는 컨트리 뮤직 노르웨이의 가수 손드레 브라트란드가 새로 내놓은 컨트리 뮤직(민요) 음반이다. '고향 노래를 불러주오'는 타 이틀곡 외에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대의 손을 내게 주오' 라는 아일랜드 민요를 하나 더 수록하고 있고, 유명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은 넓고'를 포함해 미국 민요들도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노르웨이 민요 선율로 만든 '저녁 기도'는 교묘한 도입부터 아주 인상적이다. 가난한 방랑자가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인데 야릇한 여운을 남긴다.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운 감성의 노래라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다.

FXCD 289



**기름이 나오는 곳 앞에서**

노르웨이 프로이센 뮤직 상에 빛나는 환상적인 음반! 기름을 올리는 기구들, 높은 사무실 블록, 현대풍의 레스토랑, 분주한 조선소가 있는 곳, 즉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북해의 해양유전 개발 현장을 연상케 하는 컨셉트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음반이다. 1981년 노르웨이 프로이센 뮤직 상에 빛나는 굉장히 유명한 음반인데 1981년에 이미 LP로 발매되었던 것을 이번에 CD로 재발매했다. '리아라센 언덕 아래'라는 노래를 필두로 '왜 혼자 걷고 있니?', '오 그대 나의 임마누엘', '농장', '너는 그를 한번 받을 거야'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환상적인 음향으로 실려 있다. '농장'에서는 '음매, 음매...' 하는 동물 울음소리가 아주 인상적이고, '시리'에서는 만돌린과 기타가 꾸미는 트레몰로 환상 및 보컬이 가슴 뭉클하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 음반이다!

FXCD 27

**Concord New Releases**



PKD 85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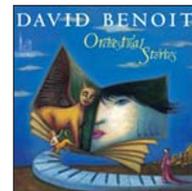
**에릭 마리엔탈: GOT YOU COVERED!**

팝, 재즈, 클래식, 월드 음악을 넘나드는 에릭 마리엔탈의 감미로운 스탠다드 앨범

척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의 색소포니스트 우리에게 친숙한 에릭 마리엔탈! 지금까지 그는 폴 테일러와 함께 피크 레이블의 간판 색소포니스트로 활동하며 컨템포러리 재즈계열의 음악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번 그의 신보는 새로운 음악을 추구했다가 보다는 힘을 뺀 채 편하게 평소 자신이 즐겨 듣던 음악을 연주한 일종의 스탠다드 앨범이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비틀즈의 'I Will', 빌리 조엘의 'New York State Of Mind', 비지스의 'Emotion',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벤 E. 킹의 'Stand By Me'와 같은 팝송에서 레스 맥켄의 연주로 유명한 소울 재즈의 명곡 'Compared To What', 척 코리아가 특별히 참여한 피아노-색소폰 듀오 'My One And Only Love', 조지 벤슨의 노래로 유명한 'Moody's Mood For Love'의 재즈 스탠다드 그리고 바흐의 인벤션에서 따온 'Two Part Invention #4 in D Minor' 그리고 짐시 킹즈의 대표곡 'Love And Liverte' 까지 참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번 앨범에는 리퍼터스의 리더 러스 프리먼이 기타를, 옐로우자켓의 러셀 페란테가 키보드를, 웨더 리포트 출신의 피어 어스킨이 드럼을 그리고 서부 최고의 세션맨 데이브 카펜터가 베이스를 맡아 컨템포러리 재즈계 올스타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원곡의 멜로디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깔끔하게 연주한 덕에 누가 들어도 편하게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친숙하다. 케니 G, 데이브 코즈, 워렌 힐의 감미로운 스무스 재즈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을 듯하다. 에릭 마리엔탈의 부드러운 면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



PKD 85302

**데이빗 베노아: ORCHESTRAL STORIES**

데이빗 베노아, 그의 일생일대의 역작 찰리 브라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노아의 일생 일대의 역작이 마침내 공개되었다. 대중들에게는 컨템포러리 재즈 뮤지션으로 친숙하지만 원래 그는 작곡과 피아노를 전공하였으며 뮤지컬, 영화 음악들을 위해 오케스트라 작업을 준비하였으며 이미 몇 차례 공연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음반은 그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작품을 담고 있는데 9.11 테러 희생자를 위한 '9-11'과 같은 소품곡, 마릴린 먼로에 관한 뮤지컬에 삽입되었던 'Something's Gotta Give'를 비롯하여 짧은 우화를 오케스트라로 표현한 'The Centaur And The Sphinx', 'Kobe' 등 컨템포러리 피아니스트로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특히 체코 오케스트라와 함께 직접 지휘까지 맡은 뒤의 두 곡은 클래식팬들에게도 짧지만 강렬한 충격을 선사할 듯하다.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 만큼이나 강한 매력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CCD 23022

**슬라이브: BREAK OUT**

보다 뜨겁고 강렬해진 슬라이브 사운드의 진수! MMW와 잼밴드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슬라이브의 화려한 콩코드 데뷔작! 재즈의 명가 블루노트를 통해 90년대말 2000년대초 재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던 이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장르의 구석을 벗어나, 슬라이브만의 진정한 음악세계를 담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블루노트 시절의 음반보다도 훨씬 뜨겁고 강렬하며 특히 사가 칸, 이반 네빌, 코리 글로버등 유명한 흑인 보컬리스트들의 참여로 기존의 핑키 사운드에 진한 R&B적인 색채 그리고 뜨거운 록사운드까지 어느 한 곡도 빼 수 없을 만큼 슬라이브만의 사운드를 담아냈다.

특히 로버트 랜돌프가 참여한 'Crosstown Traffic'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스피드과 테크닉 그리고 핑키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슬라이브 최고의 연주곡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잼밴드 사운드 그리고 슬라이브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브람스 만나러 간

## 커즌과 부다페스트 사중주단



8.110306

BRAHMS: Piano Quintet (1950)  
 DVORAK: Piano Quintet, Op. 8 (1953)  
 Curzon, Budapest Quartet



8.110307

SCHUMANN: Piano Quintet, Op. 44  
 BRAHMS: Piano Quartet No. 2  
 Curzon, Budapest Quartet(1951-1952)

### 낙소스로 나온 커즌의 '보석 같은 음반'

“낙소에서 나온 커즌의 브람스 오중주 앨범을 저녁에 들었습니다. 역시 커즌이고, 역시 부다페스트입니다. 복각도 훌륭하네요.” 필자와 컴퓨터를 통해 거의 매일 대화하는 한 친구가 며칠 전에 불쑥 던져 온 말이다. 슈베르트나 브람스를 사랑하는 필자로서는 커즌이란 연주자가 그런 작곡가들과 연결되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이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진다. 더군다나 부다페스트 사중주단이 함께한 브람스 피아노 오중주라니! 약사인 그녀가 방금 글이 아니라 무슨 각성제라도 하나 처방한 것처럼, 가물가물하던 기억이 한 가닥 실마리가 잡히는가 싶더니 제법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음반 사 모으기에 한창 전념하던 LP시절, 그때 나는 정말 받은 미처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애호가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필자도 음악에 붙들려 그르친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섭생의 문제까지도 그랬다. 어머니가 아

래층에서 저녁 식사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대답만 해놓고 음악에 빠져 들다가 그만 두 세 시간을 훌쩍 보낸 후, 냉정을 되찾은 가슴과 허기진 배로 후닥닥 내려갔을 때는 이미 식탁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면, 나는 여지없이 어머니의 불호령을 감내해야 하곤 했었다. ‘잡수세요’ 할 때는 안 먹고 ‘쳐 먹어라’ 할 때 먹는다’는 심한 꾸중을 듣고 시무룩해져 내방에 올라가서는 ‘너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애꿎은 음반에게 솜방망이 화풀이를 하고 금세 또 음반을 곱게 쓰다듬어 주었다.

아무튼 그렇게 음악에 미쳐 살던 시절의 어느 오후였다. 전날 무엇을 하고 피곤했던지 점심 식사를 한 후 FM방송을 틀어놓고 그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브람스의 피아노 오중주가 흐르는 소리에 나의 예민한 귀가 반응했고, 달콤해야 할 낮잠은 곧 비몽사몽이란 어정쩡하고 혼미한 정신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

하게도 조용한 2악장이 흐르자 주위의 사물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누워 말뚱말뚱 눈을 뜬 채 나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마치 식물인간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힘찬 4악장 피날레와 함께 피크를 맞은 내 심장 박동이 음악이 끝난 후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브람스 음악에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한 여러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 흥분해서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진행자가 앞에서 멘트를 하고 말았는지 어떤 실내악단과 피아니스트의 연주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흥분을 도저히 가라앉힐 수가 없어 친구한테 전화했다. 실은 3일 전에 압구정의 한 조그만 LP가게에서 부다페스트 사중주단과 루돌프 제르킨의 연주로 된 음반을 봤었지만 그냥 두고 왔었다. 부랴부랴 그거 사러 친구와 그 가게에 갔다. 그런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3일 전에 다섯 명이 나란히 찍힌 재킷으로 봤었는데, 시꺼먼 바탕에 그림이 조그맣게 있는 음반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것을 들고 왔고 거짓말 보태 판이 펑크 나기 직전까지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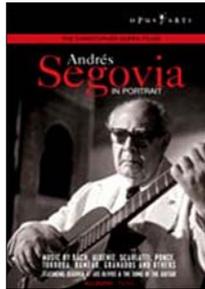
이제 우리가 새로 만나는 음반은 부다페스트에 제르킨이 아닌 커즌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필자는 아직 그 음반을 들어보지 못했다. 감식력에 관한 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제르킨보다 커즌이 더 좋았다고 말한다. 시간 나면 꼭 들어보고 싶은 목록에 얼른 추가해두었다. 브람스의 음악에는 커즌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영국 피아노 음악계의 거목이었던 커즌은 1907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12세였던 1919년에 왕립 음악원에 들어가 찰스 레드(Charles Reddie)한테 피아노를 배웠다. 1923년에 그를 아주 높이 평가했던 지휘자 헨리 우드 경이 바흐의 3중 협주곡을 연주하는 자신의 프롬나드 콘서트에 커즌을 독주자로 데뷔시켰다. 우드는 경력 초기에 커즌의 앞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준 은인이었다. 1928년에 커즌은 베를린에서 슈나벨한테 2년간 배웠는데, 슈나벨은 나중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자인 커즌이 대단히 특출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크게 공언함으로써 음악계를 들썩이게 만들기도 했다. 1930년 파리로 건너간 커즌은 란도프스카와 불랑제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두 선생의 음악세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1931년에 하프시코드 연주자와 결혼한 후 커즌은 이듬해에 영국으로 돌아와 활동했다. 1939년 뉴욕 데뷔, 1955년에는 크나퍼츠부슈가 지휘하는 빈필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등장하기도 했다. 1977년에 작위를 받았고 1982년에 태어난 그곳 런던에서 다시 세상을 떠났다.

커즌은 평생 고전, 낭만주의 레퍼토리들을 즐겨 연주했는데, 그가 특별히 골몰했던 음악들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리스트,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정도다. 커즌은 아주 예민한 연주자였다. 음이 지닌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내려고 감성은 항상 예각으로 반응했고, 그가 두드리는 건반의 톤은 무척 아름다웠다. 더 중요한 것은 커즌이 근본적으로 외향적 화려함보다는 악곡에 내재한 작곡가의 의도나 정서를 파악해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손가락 재주만 뛰어난 연주자들 중에는 커즌 같은 위대한 연주자가 지향하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의 느린 악장에서 그가 보여준 예민한 타건을 상기해보라! 둔감한 연주자들은 브람스 음악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애호가들로 하여금 브람스 음악을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데 그런 손가락 재주꾼들이 일조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다. 브람스 음악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한 연주자의 조건은 우선 예민한 감성이다. 피아노 오중주에서 제르킨보다는 커즌이 더 좋을 것이라는 추측은 제르킨이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긴 하지만 커즌만큼 예민한 연주자는 아니라는 전제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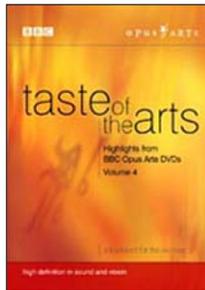
BBC DVD



BBC/Opus Arte  
OA CN0931 D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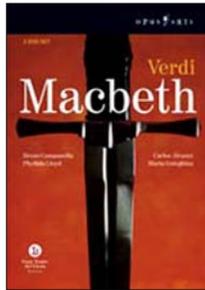
무조건 모셔 와야 할 위대한 '기타의 시인' 바이올린의 귀재 파가니니, 피아노의 귀재 리스트, 그리고 기타의 귀재, 누굴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스페인 이 낯은 위대한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이다. 그런데 파가니니나 리스트의 영상을 볼 수 있는가! 하지만 세고비아의 영상은 볼 수 있다. 우리는 엄청난 행운이다. 어린 시절 스페인 기타 소리에 매료되어 민속악기의 위치에 있던 악기를 세계의 콘서트 무대에 옮겨놓았던 기타의 전설! 그의 일생을 다듬은 이 결정판에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스키타라티, 라모, 소르, 바흐, 쇼팽 등의 주옥같은 명곡들이 축축하게 흐르는데 그가 연주하는 음악들은 모두 시가 된다. 한마디로 '감동의 도가니'다! 크리스토퍼 누펜 예술영상의 최고봉! 이 영상물을 내놓고 크리스토퍼 누펜 스스로도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한다. 두툼한 부클릿에는 백발 노년에 연주하던 큼직한 칼라사진과 그림이 들어 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다. 이 부클릿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구매 욕구를 훨씬 더 강렬하게 부추길 것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자막. 196분.



BBC/Opus Arte  
OA 0212

예술적 장면 맛보기 Vol.4

폭발적인 인기의 DVD들, 그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 BBC Opus Arte가 분기마다 인기를 끌었던 DVD 아이템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파노라마처럼 엮은 영상물 포 이 번이 네 번째다. 웨일스 BBC국립 오케스트라가 홀스트의 행성을, BIS의 피아니스트 프레디 켈프가 쇼팽의 연습곡을 연주하고, 브리튼의 〈나사의 회전〉, 푸치니의 〈자니 스키기〉 중에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셀리 매튜스), 〈나비부인〉 1막의 장면, 바그너의 파르지팔의 1막, 니벨룽의 반지 발퀴레 3막, 트리스탄과 이졸데 3막, 몬테베르디 〈포페아의 대관〉, 슈베르트의 송어 오중주(듀프레, 바렌보임 등) 등 그야말로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매료시킨다. 헨델 〈수상음악〉 중의 '혼파이프'는 앤드루 맨지가 잉글리시 콘서트를 지휘하는 장면이 담겼고, 엘가의 〈수수께끼 번주곡〉중 '님로드'는 앤드루 데이비스가 BBC심포니를 지휘한다. 발매된 지 얼마 안 되는 린지 사중주단의 하이든 현악사중주,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영상도 실렸다. 대부분 초고화질을 자랑하며 1시간 30분가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흥미롭다. 97분. 초고화질과 초고음질.



BBC/Opus Arte  
OA 0922(2DVDs)

베르디: 오페라 [맥베트]

음산한 가운데 극적 박력이 돋보이는 베르디 초기의 가장 비범한 작품 문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베르디에게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오텔로〉와 〈팔스타프〉라는 최후의 두 걸작에 이르러서야 셰익스피어를 사용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젊은 시절(34세)에 셰익스피어를 다루었던 명작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맥베트〉이다. 이 오페라는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불타지만 소심한 성격인 맥베트, 이런 남편을 빈틈없이 조정하며 스코틀랜드의 최고 권좌에 오르게 하는 레이디 맥베트를 주인공으로 한다. 맥베트의 고뇌도 잘 묘사되었지만 레이디 맥베트의 악마적 음모와 처절한 몰락이 역동적으로 펼쳐진 대단한 걸작이다.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프로덕션을 채택한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의 2004년 최신 실황. 앤소니 워드의 무대와 의상. 필리파 로이드의 연출은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놀랄 만큼 신선하다. 카를로스 알바레스(맥베트)의 빼어난 심리 연기, 현존하는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의 레이디 맥베트도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4막에서 실성한 레이디 맥베스의 몽유병 장면은 전율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추가자료]

○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남자 주인공이 바리톤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나부코〉,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리골레토〉, 〈시몬 보카네그라〉 그리고 〈맥베트〉가 그것이다. 대체로 테너가 주인공인 경우보다 더욱 묵직한 비극이 된다. 특히 다른 작품들에서의 바리톤 주역은 부녀, 혹은 부자간의 애절한 사랑을 묘사하기 위한 설정이 많은 반면 〈맥베트〉는 순수하게 남성적인 깊은 고뇌를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란 점에서 구분된다.

○ 한편 〈맥베트〉는 묵직한 작품이면서도 베르디의 초기 시절 작품답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빼어난 선율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마녀들의 합창은 무척 선율적인데도 극의 분위기에 잘 부합한다.

○ 레이디 맥베트는 〈나부코〉의 아비가일레에 이어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악역을 담당할 경우이다. 아비가일레와 마찬가지로 베르디는 레이디 맥베트에게 전통적 의미의 여성상과 크게 어긋나는 격렬한 권력욕과 비열한 음모를 부과했고, 그 결과로서 처절한 파멸을 맞이하도록 구상했다. 레이디 맥베트는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의 영역에 속하며 초일류 가수만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마리아 굴레기나는 현재 레이디 맥베트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로서 각광받고 있다.



BBC/Opus Arte  
OA 0933(2DVDs)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

세계 오페라계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첫 영상물 현재 유럽 오페라 계는 새로운 테너의 출현으로 들떠있다. 멕시코 출신의 롤란도 비아존(Rolando Villazon)이 그 주인공이며 그의 광풍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호세 카레라스의 열정, 플라시도 도밍고의 연기력,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미성을 두루 겸비한 무결점 테너로 불리는 비아존은 이미 두 개의 독집 음반을 통해 전세계 오페라 팬을 열광시켰지만 본격적인 오페라 영상물은 이번이 처음이다. 〈돈 카를로〉는 16세기 스페인 최전성기의 궁정을 배경으로 5명에 달하는 주인공들이 운명적인 비극으로 치달는 이야기이며, 인본주의자로서 베르디의 모든 역량이 집결된 감동적인 명작이다. 2004년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인 이 영상물은 롤란도 비아존 외에 로버트 로이드(필리포 2세), 아만다 루크로프트(엘리자베타), 드웨이인 크로프트(로드리고), 비올레타 우르마나(에블리), 그리고 천재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가 드림팀을 구성하여 그 감동을 폭발적으로 구현했다. 스페인 왕가의 영묘(靈廟)인 엘 에스코리알과 십자가에 못박힌 거인의 발을 길게 드리운 빌리 데커와 볼프강 구스만의 무대는 이 작품의 암울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조성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단연코 최고의 영상물이다.

[추가자료]

○ 〈돈 카를로〉의 무대는 16세기 중반의 스페인이다. 당시 필리포 2세의 스페인은 무적함대를 기반으로 유럽 최고의 강대국으로 떠오른 전성기였다. 그러나 필리포 2세가 당초 자신의 아들인 돈 카를로와 결혼하기로 되어있던 프랑스의 엘리자베타 공주와 혼인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된다. 그 역사적인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있지만 실리는 민중 구전에 따라 돈 카를로와 엘리자베타가 실제 사랑했던 것으로 묘사한 희곡을 썼고 베르디는 그 희곡을 바탕으로 가장 감동적인 오페라를 완성한 것이다.

○ 네덜란드 오페라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덜란드의 자랑인 로열 콘서트헤보우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는 경우에는 일급 오페라 극장이 된다. 특히 이 오케스트라의 수장이 이탈리아 오페라의 마에스트로인 리카르도 샤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연출자 빌리 데커는 물론 출신의 명작이다. 무대 디자이너 볼프강 구스만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구조화되고 대칭적인 무대, 이를 이용한 꿈결 같은 분위기에서 드라마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돈 카를로〉 무대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엘 에스코리알의 경우도 실재는 돈 카를로가 죽은 이후에 필리포 2세가 조성한 영묘이므로 역사상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채택함으로써 극적인 감동을 배가시키고 있다.



BBC/Opus Arte  
OA 0927(2DVDs)

몬테베르디: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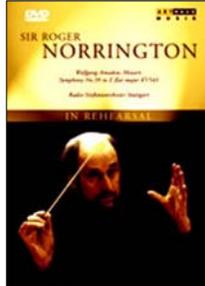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기초한 오페라 태동기의 위대한 걸작 르네상스 말기와 바로크 초기에 활약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1567~1643)는 오페라 태동기의 최고의 거장으로 약 10여 편의 오페라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현재 전체 작품이 전하는 것은 〈오르페오〉, 〈율리시스의 귀환〉, 〈포페아의 대관〉의 세 편뿐이다. 이 중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타카의 왕 율리시스(오디세이)의 얘기를 오페라로 만든 것이 〈율리시스의 귀환〉이며 율리시스가 온갖 역경을 뚫고 고향에 돌아와 정숙한 아내 페넬로페를 유혹하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다시 권좌에 오르는 얘기를 담았다. 몬테베르디의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 문호 호메로스의 고전을 다룬 고급의 모든 오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꼽힌다. 1998년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인 이 영상물은 피에르 아우디의 과감한 미니멀리즘 연출과 지휘를 맡은 글렌 윌슨의 창의적인 연주로 호평 받은 바 있다. 앤소니 롤페 존슨(율리시스), 그라치엘라 아리아(페넬로페)를 비롯하여 토비 스펜스, 브라이언 아사와 등 일급 출연진이 고전미를 갖춘 드라마적인 오페라로 이끌었다.

[추가자료]

○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는 오늘날 그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다. 1607년부터 1642년에 걸쳐 작곡된 10곡의 오페라 중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1607년의 〈오르페오〉와 만년에 베네치아에서 쓴 두 개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포페아의 대관〉뿐이며, 양자 사이의 30여년의 간격을 메울 만한 것으로는 1624년의 극적 정경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싸움〉 뿐이다.

○ 몬테베르디의 악보는 당시 관행에 따라 완벽하게 기보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정본으로 여겨진 악보는 사실 나폴리와 베네치아에서 발견된 필사본에서 얻은 것이며 이 필사본에는 노래와 통주저음 파트 밖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노래와 통주저음 사이에 다른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여 채워 갈 것인지는 극장의 조건에 맞추어 그때그때 결정할 것이었다. 직접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며 바로크 앙상블을 이끈 글렌 윌슨은 어차피 견고한 배경이 없는 학문적 분석보다는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고안품으로서 연주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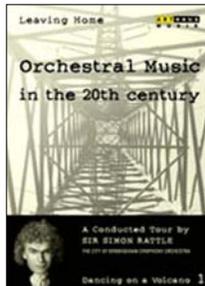
Arthaus DVD



Arthaus 101 070

로저 노링턴의 모차르트 교향곡 39번과 리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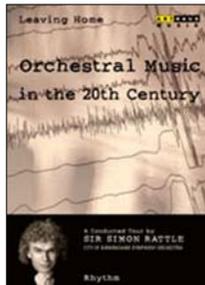
정격해석의 대가한테 배우는 모차르트의 걸작 영국의 가수출신 지휘자로 탁월한 정격해석의 명반들로 전 세계 수많은 애호가들을 열광시켰던 로저 노링턴 경. 이 아이템은 그 대가가 모차르트 교향곡 39번을 연주하고 리허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인데, 1996년 독일 슈베칭어 축제 실황이다. 1962년 하인리히 쉬츠 합창단을 창단했고, 특별히 몬테베르디에 몰두해왔으며 모차르트, 베토벤, 베를리오즈의 음악에 새 영혼을 불어넣는 등 정격해석을 최선봉에서 지휘했던 이 거목이 들려주는 모차르트의 교향곡은 정격해석의 매혹에 빠져보고 싶은 애호가는 반드시 들어 봐야한다. 모차르트의 이 걸작을 그는 참으로 신선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게 재현해낸다. 왜 그가 후배 정격해석 지휘자들한테도 늘 귀감이 되고 특별한 존경을 받는지 이 아이টে이 잘 증명해준다.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했다. 60분.



Arthaus 101 033

래틀과 함께 떠나는 20세기 관현악으로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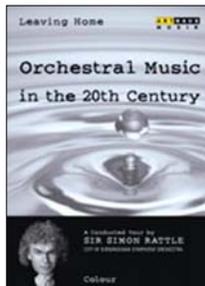
제1편 : 화산 위의 춤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왠지 난해하고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느껴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음악사서적에 등장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여러 작품들, 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있으나, 무작정 덩벼들만한 용기가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멋진 가이드 한 사람을 소개한다.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장 사이먼 래틀이다. 'Leaving Home' 시리즈는 래틀이 과거 버밍엄 심포니의 상임지휘자를 맡던 시절에 제작된 음악 교육용 영상물이다. 시리즈의 첫 편인 본 영상물에서는 낭만음악에서 무조음악으로 음악계의 큰 흐름이 전환하던 시기를 다루었다. 무조음악의 불씨를 제공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반음진행으로부터 시작되어 쇤베르크, 말러, R 슈트라우스, 베베른, 베르크 등을 거치며 20세기 관현악의 세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 래틀의 진절환 해설과 함께! 펼쳐진다. 메조소프라노 펠라시티 팔머와 바이올리니스트 기욤 크레머가 찬조출연하여 '엘렉트라'의 아리아와 베르크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하며, 그 외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 '정화된 밤', 말러 교향곡 7번, 베베른의 관현악 소품 등의 단편들을 감상할 수 있다. \*\*보너스 오디오 트랙 -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 베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Arthaus 101 035

래틀과 함께 떠나는 20세기 관현악으로의 여행

제2편 : 리듬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왠지 난해하고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느껴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음악사서적에 등장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여러 작품들, 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있으나, 무작정 덩벼들만한 용기가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멋진 가이드 한 사람을 소개한다.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장 사이먼 래틀이다. 'Leaving Home' 시리즈는 래틀이 과거 버밍엄 심포니의 상임지휘자를 맡던 시절에 제작된 음악 교육용 영상물이다. 시리즈의 두 번째 편인 본 영상물에서는 음악의 3요소 중에서 현대음악에서 한층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리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리듬 꼴의 혁명적인 사고전환을 가져온 문체작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필두로, 바레즈의 'Ionisation', 리게티의 'Atmospheres', 라이히의 '나무를 위한 음악', 볼레즈의 '브루노 마테르?'(?) 추모하는 전례, 메시앙의 '튀랑갈리아 교향곡', 말러의 '대지의 노래', 난카로우의 '피아노 롤' 등의 문제작들이 흥미롭게 다루어진다. 특히 안느 소피 폰 오토가 노래하는 '대지의 노래'와 메시앙의 '처제이'가 최고의 옹테 마르테노 연주자였던 장느 로리오의 생전 모습을 담은 '튀랑갈리아교향곡'은 귀한 경험일 필 것이다. \*\*보너스 오디오 트랙 - 메시앙 튀랑갈리아 교향곡



Arthaus 101 037

래틀과 함께 떠나는 20세기 관현악으로의 여행

제3편 : 컬러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왠지 난해하고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느껴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음악사서적에 등장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여러 작품들, 들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있으나, 무작정 덩벼들만한 용기가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멋진 가이드 한 사람을 소개한다.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장 사이먼 래틀이다. 'Leaving Home' 시리즈는 래틀이 과거 버밍엄 심포니의 상임지휘자를 맡던 시절에 제작된 음악 교육용 영상물이다.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인 본 영상물에서는 보다 다양해진 관현악의 색채적인 활용법을 다루고 있다. 빛의 다양한 인상을 캔버스에 재현하고자 했던 인상파 화가들의 노력을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서법으로 음악에 적용시켰던 드뷔시 이후 저마다의 개성과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다양한 작곡가들에 의해 20세기 관현악곡들의 색채감은 전시대보다 한층 더! 다양해졌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유희',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타케미치의 '꿈/창문', 볼레즈의 '피아노를 위한 기보법', 메시앙의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등의 단편들이 수록되었다. \*\*보너스 오디오 트랙 - 드뷔시의 유희



Arthaus 101 243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감상하는 담백한 비쉬코프의 브람스 교향곡들

Avie를 통해 발매된 전집과 동일한 연주로 2002년(1번)과 2004년(2번)에 이 악단의 홈그라운드인 켈른의 필하모니에서의 행해진 세션을 기록한 것이다. 군살이 말끔하게 제거된 비쉬코프의 단정한 브람스 교향곡들을 고해상도의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나,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푸짐한 부록이다. 비쉬코프의 성장과정을 다룬 한 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그것으로 고향 레닌그라드에 관한 감흥과 음악 수련과정, 지휘자로서의 이력 등이 흥미롭게 소개되고 있다. 비쉬코프의 부인인 피아니스트 마리유 라베크, 은사이자 러시아의 위대한 지휘자인 일랴 무신, 작곡가 아르보 파트트 등이 찬조출연하며, 비쉬코프가 지휘하는 영웅의 생애,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베디 레퀴엠, 말러 5번 등등의 단편들도 만날 수 있다. 보이소프라도 솔리스트로 활약하던 당시의 비쉬코프의 미성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나는 비쉬코프의 템포 선택에 호감이 간다. 특히 그가 빛어낸 빠른 악장들은 경박하지 않으며 강건하면서도 유연하다. 지휘자와 녹음 기술진은 균형 잡힌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제대로 뽑아내었고, 그 결과 작품의 텍스처가 충분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마디로 이 음반은 좋은 브람스다. 나는 이 연주들을 제대로 즐겼으며 앞으로도 큰 즐거움을 가지고 이들의 연주를 만날 것을 기대한다." - John Quinn, MusicWeb International

TDK DVD



TDK DWVV-OPMLES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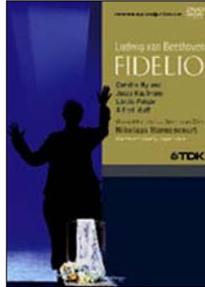
최고의 명가수 마리아 굴레기나와 호세 쿠라의 드라마틱한 만남 <마농 레스코>는 푸치니의 초기작이지만 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트리스탄과 이졸데>요, <보니아 클라이드>라 불리기도 한다. 세상의 상식과는 격리된 듯한 두 남녀의 무분별한 사랑이지만 그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을 악보에 담아낸 걸작이다. 특히 뉴올리온즈의 황야에서 죽어가는 마농의 피날레 씬은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이다. 1998년 라 스칼라 무대에 오른 <마농 레스코>는 큰 화제를 모았다. 우선 한창 떠오르는 스타로 각광받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와 '마리오 델 모나코'의 재래라고 불린 아르헨티나의 신예 드라마틱 테너 호세 쿠라가 한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대접 받는 이들의 7년 전의 모습은 싱그럽기까지 하다. 또한 라 스칼라의 수장이지만 푸치니 오페라에는 잘 나서지 않았던 리카르도 무티가 직접 지휘봉을 잡아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밀리아나 카니니의 연출은 사실성을 기초로 하되 무척 절제된 무대를 설계했으며 여류답게 섬세한 동선과 감각적인 연기를 이끌어 냈다.

[추가자료]

○ <마농 레스코>는 <라보엠>이나 <토스카>보다 앞서 작곡된 푸치니 최초의 출세작이며 프랑스의 소설가 아베 프레보의 원작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 작곡가인 줄 마스네가 푸치니보다 먼저 <마농>을 작곡하였으나 푸치니의 작품과는 줄거리도 다소 다르고 음악적 스타일도 차이가 있다. 결국 같은 소설에 의한 두 개의 개성 있는 오페라가 남는 것이다.

○ <마농 레스코>의 여주인공인 마농은 너무나 순진하고 아름다워서 남성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지만 너무 속이 얇고 세속적인 유희를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캐릭터이다. 상대역인 데그리외는 기사 신분이며 마농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한 대가로서 온갖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돈으로 마농을 유희한 제르트는 전형적인 악역이며 자신을 배신한 마농 레스코를 매춘죄로 고발하여 미국의 황무지로 추방한다.

○ <마농 레스코>의 두 주인공은 순수한 젊은 영혼과 격정적인 사랑의 비극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목소리로는 극의 한 면만을 표현할 뿐이다. 만약 현재의 굴레기나와 쿠라가 이 오페라를 함께 부른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영상물은 두 사람이 보다 뜻뜻했던 시절에 기록한 자료여서 젊은 매력에 고스란히 살아난다.



TDK DVUS-OPF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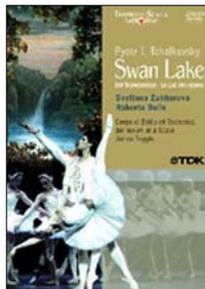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부부간의 사랑과 정의의 승리를 노래한 베토벤의 송고한 오페라 베토벤은 단 하나의 오페라를 남겼고 그것이 <피델리오>이다. 종종 '오페라답지 않다'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진정 위대한 작품이다. 첫째, 어떤 형태의 문예 장르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을 다루었음은 물론 모든 불의를 용기와 신념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둘째, 19세기 초의 오페라로는 드물게 극적인 감동을 안겨주는 음악이 등장하며 특히 2막 초입에 쇠사슬로 묶인 플로레스탄의 아리아는 과연 베토벤이 아니면 표현하기 힘든 웅혼한 스케일이다. 본 영상물은 2004년 취리히 오페라 실황이며 오페라와 연극 양면에서 유럽 최고의 연출가로 불리는 위르겐 플림의 무대이다. 카리타 마틸라를 잇는 핀란드 출신의 대형 소프라노 카밀라 닐룬트가 레오노레를 맡았고, 독일 출신의 차세대 드라마틱 테너로 촉망받는 준수한 외모의 요나스 카우프만이 플로레스탄을 부른다.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는 이 오페라를 '부부의 사랑에 대한 빛나는 찬가'라고 격찬하며 특유의 구조적 투명함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추가자료]**

○ 핀란드의 소프라노 카밀라 닐룬트는 종교음악과 리트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았고 현재는 오페라 가수로서 맹활약 중이다. 날씬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역시 핀란드 출신의 초대형 소프라노인 카리타 마틸라한 주특기였던 목직한 배역을 잘 소화한다. 요나스 카우프만 역시 리트와 오페라 양면에서 활약하는 신세대 테너이며 독일에서 보기 드문 드라마틱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게다가 오페라 가수로서 완벽한 체격 조건과 외모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 연출을 맡은 위르겐 플림은 본래 연극 연출가로서 함부르크의 탈리아 극장 예술감독을 1985년부터 15년간 맡으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명연출가로 떠올랐다. 오페라 연출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지내는가 하면 바그너의 총본산인 바이로이트 가극장의 21세기 첫 <니벨룽의 반지>를 연출하기도 했다. 최근의 주요 활동무대는 취리히 가극장과 슈타츠키펠레 베를린 등이며 2006년부터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총감독으로 일할 예정인 그야말로 유럽 최정상급의 예술가이다.



TDK DVWW-BLSL

**차이코프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우리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백조' 이 세상에는 훌륭한 발레리나들이 많이 있지만 '발레리나 아솔루타(ballerina assoluta)'로 불리는 절대적 경지에 오른 무용수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신이 빚어낸 발레리나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키로프 발레를 거쳐 현재 볼쇼이 발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계 각지의 일류 발레단에 초청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발레리나 아솔루타이다. 2005년 초가을에 서울을 방문하는 볼쇼이 발레의 개막 공연(10월 5일, 지젤)에도 당연히 그녀가 나선다. 2004년 4월 밀라노 라 스칼라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자하로바를 객원 주역으로 초빙하고 지크프리트 역에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미남 발레리노 로베르토 블레를 기용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연되는 프티파-이바노프의 안무가 아니라 구소련의 블라디미르 부르마이스터가 개정한 안무를 사용한 보기 드문 공연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2막의 호수가 장면은 이바노프의 안무를 그대로 살리되 오데트가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하는 짧은 프롤로그를 삽입하고 1, 3, 4막의 구성에도 상당한 손질을 가했다.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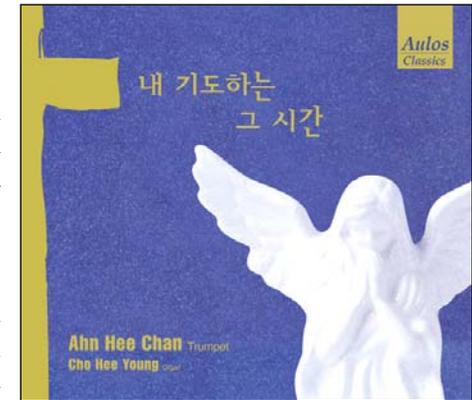
**[추가자료]**

○ <백조의 호수>는 발레의 교과서이며 신약성서에 해당한다.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뛰어난 두말할 것도 없고, 한 명의 주역 발레리나가 선한 백조(오데트)와 악한 흑조(오딜)를 동시에 연기해야 한다는 점도 놀라운 효과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모든 발레리나가 선망하는 최고의 배역이 오데트/오딜이다. 차이코프스키 생전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그의 사후에 마리우스 프티파와 그의 제자 레프 이바노프가 재안무함으로써 최고의 작품으로 재탄생하기에 이른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바노프가 안무한 2막은 그대로 두는 대신 1, 3, 4막을 수정한 수많은 판본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중 성공적인 것은 일부에 그친다. 최근에는 매튜 본, 마츠 에크, 존 노이마이어의 보다 혁신적인 재해석도 주목받고 있다.

○ 소비에트의 안무가 블라디미르 부르마이스터(1904~71)는 가장 널리 알려진 프티파-이바노프가 차이코프스키의 원형을 훼손했다고 보고 1953년에 자신의 개정판을 발표했다. 프롤로그를 두어 왜 오데트가 백조로 변했는지를 설명했고 피날레에서는 지크프리트와 마법에 걸린 오데트가 결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 유명한 '흑조 그랑파'의 음악도 드리고가 편집한 악보 대신 당시 새롭게 발견된 차이코프스키의 오리지널 악보에 충실하도록 바꾸었다.

○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1979년 우크라이나 태생이다. 불과 18세의 나이로 마린스키(키로프) 발레의 프린시펄이 되었으며 2003년에 볼쇼이 발레로 이적했다. 유난히 긴 팔다리가 인상적인 무용수이다. 로베르토 블레는 1975년생이며 이탈리아 뿐 아니라 영국 로열 발레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초청 무용수이다. 잘생긴 얼굴과 우아함이 겸비된 파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 안희찬 성가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AMC2-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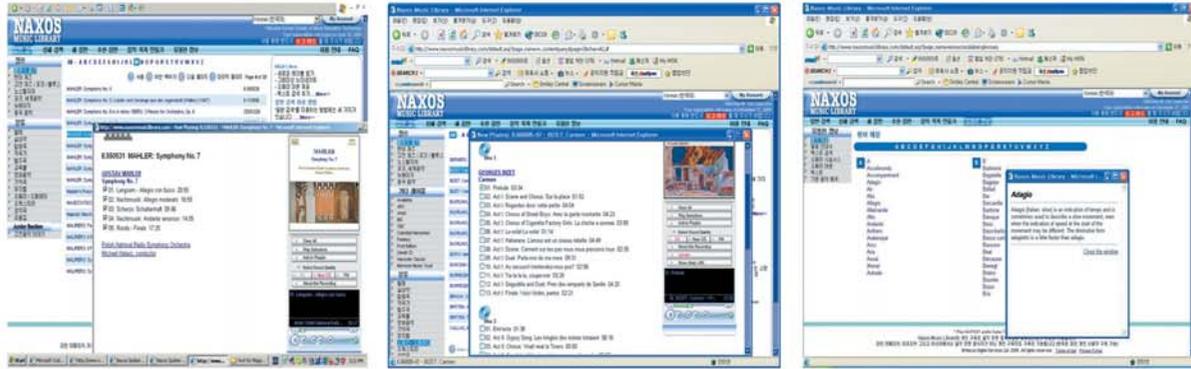
주의 기도 · 살아계신 주 · 내 선한 목자  
종려나무 ·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서로 사랑하자 · 신의 어린 양 ·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 예수 나를 위하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내 평생에 가는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오 신실하신 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트럼펫 선율로 올리는 기도**

우선 국내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 중의 한사람인 안희찬의 이 아름다운 음반을 다시 출판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본 음반은 몇 해 전 이미 국내의 다른 회사에서 발매되었던 것인데, 보다 많은 애호가들한테 다시 소개해보고 싶다는 연주자와 음반사의 소망과 의지가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발매된 아이템이다. 하지만 음반사의 이름만 바뀌 그대로 새로 찍은 것이 아니라, 표지나 제목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한 곡은 뺀고 트랙 순서도 완전히 바꿨다. 음악의 순서를 바꾼 것은 물론 '흐름'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로써 70분 정도의 시간을 지루함 없이 보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음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쓴 말로트의 유명한 작품 '주의 기도'로 시작한다. 은은하게 저음부를 장식하는 오르간 반주에 맞춰 안희찬의 트럼펫은 풍성하고 편안한 연주로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준다. 평온하게 보듬고 있던 소중한 마음의 기도를 하늘로 세차게 밀어 올리려는 듯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치솟는 종반의 극적인 고음선율은 머리를 쫓하게 만든다. 안정된 음정에 음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감정을 여유 만만하게 실어내는 연주자의 특출한 연주솜씨 덕분에 음악은 정말 편안하게 들린다. 이어지는 '살아계

신 주(개이더)' 외에도 전반부에는 '내 선한 목자(김두완)', '종려나무(포레)', '주님의 얼굴을 보라(블드백)', '내일 일은 난 몰라요(스탠필)', '신의 어린 양(비제)' 등 잘 알려진 성가 곡들을 주로 실었다. 느린 곡은 이 음반을 올려놓고 평온한 기도를 올려도 좋을 만큼 느릿하지만 어떤 곡을 들어도 늘어진다느 느낌은 전혀 없다. 주로 음표 하나하나에 의미를 정성스럽게 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로 안희찬의 트럼펫은 하나의 음도 소홀히 다루지 않으며 의외로 명징한 느낌을 준다. 후반부에 실린 곡들은 교회 다니는 애호가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찬송가들'이다. 전반부보다는 템포가 약간 빠른 것들이 대부분인데, 하지만 연주자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프레이징은 살갑고 평온한 정서는 일관되게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곱게 다듬어진 선율은 부드럽게 또 부드럽게만 흐른다. 한국 한곡이 가슴에 깊이 스미지만, 무어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가 참으로 감동적이다. 첫 곡 '주의 기도'와 통하는 수미상관의 의미에서, 그리고 이 곡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제목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으로 브래드베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끝 곡으로 앉혔다. 모두 정말 편안하다. 트럼펫으로 올리는 마음의 기도! 확실히 그렇다. 기도를 올리고 났을 때처럼, 이 음반을 듣고 나면 늘 마음의 평정이 찾아온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낙소스 온라인 클래식 뮤직 라이브러리

Naxos는 다른 어떤 클래식 레이블이나 음반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새로운 레코딩 제작으로 최대의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메이저 클래식 음반사입니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Naxos, Marco Polo, Da Capo의 전 목록 뿐 아니라 재즈, 세계 음악 그리고 클래식 역사에 길이 남는 히스토리컬 음악 등을 Harmonies와 Analekta 그리고 BIS, ARC, FirstEdition, CBC와 같은 독립 레이블들의 음반 첨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앞선 독립 레이블들을 영입해 갈 예정입니다.

낙소스는 모든 메이저와 독립 레이블 가운데 유일하게 다양한 범위의 음악 교육과 관련된 교육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소스는 McGraw-Hill, WW Norton 그리고 Prentice Hall과 같은 메이저 교육 출판사 등에 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소스는 최상의 연주와 녹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도 높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CD 손상과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더이상 진열장의 빈 공간을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복사본을 만들어 둘 필요도 없습니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기본 레퍼토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희귀 레퍼토리들이 소장되어 있어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음악 수업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외에, 낙소스 스포큰 워드 라이브러리(오디오 북)에서는 영어 학습과 교양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고전문학, 음악전기, 철학 등 600 개 이상의 작품들을 청취, 낭독이 가능합니다.

100,000곡 이상 7,000여 장의 CD분량, 2500명 이상의 작곡가의 작품, 그리고 매달 25~30장의 신보가 업데이트 되는 방대한 음원들을 씨디 10장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고 용이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콘텐츠

- >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과 작품
- > 설명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 > 설명과 함께하는 오페라
- > 오케스트라의 구성 악기들
- > 클래식 음악사
- > 오페라의 역사
- > 오페라 시놉시스
- > 오페라 대본

#### 장르

- > 클래식 음악
- > 뮤지컬 음악
- > 재즈/포크/블루스 레전드
- > 노스탤지어 / 뉴에이지
- > 월드뮤직

이 모든 음악들을 64Kbps와 128Kbps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며, 가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이메일 또는 한국지사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자는 낙소스 뮤직라이브러리 홈페이지 [www.NaxosMusicLibrary.com](http://www.NaxosMusicLibrary.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료 이용서비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년 구독 - 180,000원
- 1개월 구독 - 18,000원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낙소스 코리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naxoskorea@kornet.net](mailto:naxoskorea@kornet.net)  
[naxoskorea@naxos.com](http://naxoskorea@naxos.com)  
 (02)717-1070

거대한 클래식의 바다로 당신을 초대 합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http://www.NaxosMusicLibrary.com)



**CLASSICAL - JAZZ - WORLD MUSIC**  
 100,000 곡 이상의 유명 재즈, 클래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간단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낙소스 뮤직라이브러리와 함께 클래식 뮤직 매니아가 됩시다!!!!



표지사진 : 게오르크 틴트너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5년 9월호  
 통권 제 5호 발행 : 2005년 9월 25일  
 발행인 : 임용묵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뮤직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http://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mailto: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